

# ‘원 팀’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회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축구  
신수연(서울외국인학교)

초등학교 때 여자 친구들,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곤 할 때마다 어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내가 공을 찰 때마다 “근데 여자애가, 남자도 아니고 무슨 축구야? 그런데 여자애 치곤 꽤 잘 하네” 라고 하시는 말들을 참 많이 들어왔다. 축구를 잘한다는 것은 분명 칭찬이지만, 왜 “여자애 치곤”이라는 말이 따라붙어야 할까? 그래서일까? 이런 말이 칭찬으로만은 들리지 않았었다. 여자들에 대한 편견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곤 했지만, 동시에 의문과 서운함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차별의 섭섭함을 문득 서럽다고 느끼며, 학교 대표 팀 여자 축구 골키퍼로 내 갈 길을 가고 있던 어느 날, 나는 2010년 FIFA U17 여자 월드컵 한일 결승전 영상을 보게 되었다. 영상을 보기 전부터 나는 온몸에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을 맛보았다. 바로 숙명의 한일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미묘한 신경전을 시원하게 해소해준 것은 바로 양쪽 팀 선수들의 기가 막히는 중거리 슈팅이었다. 6골 중에 5골이 중거리 슈팅이었을 정도로 두 팀이 보여준 슈팅은 보는 나의 속마져 뺨 뚫어주었다. 특히 경기 중반쯤 나온 이 소담 선수의 하프발리슛은 가히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소담 선수뿐만 아니라 한일 양 팀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160cm 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담 선수 같이 155cm의 작은 체구의 선수에서 나오는 원더골 들은 나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할 뿐이었다. 이럴 때 나는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체구는 남들보다 작을 수 있지만 열정만큼은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이 17세 소녀들을 보면서 나는 존경심과 동시에 약간의 안쓰러움이 들었다. 마지막에 장슬기 선수가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킨 후에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얼싸안으며 기뻐하는 모습은 우승의 기쁨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받아왔던 수많은 여자 스포츠에 대한 무시와 편견에 대한 통쾌한 대답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우승한 마지막 순간까지 선수들이 120분을 뛰고도 또 승부차기를 하며 지칠 대로 지치고 정신력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에 열심히 임한 모습과, 맨 마지막에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은 보는 나를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귀중한 관전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2020 년 대전광역시 청소년 한마당 KS축구센터와 천마FC 10B의 경기를 관전하였는데, 이 경기는 앞서 얘기했던 여자 U17 월드컵 결승전에서의 마지막 장면에서 느꼈던 짜릿함을 나에게 또 느끼게 해주었다. ‘하나’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시작하자마자 공 점유가 높았던 팀은 천마FC 10B였다. 전반 2분부터 슬슬 패스를 돌리는가 하면, 슈팅도 수차례 시도했고, 결국 계속 골문을 끊임없이 두들긴 끝에 전반 9분 24초에 두 골이나 넣고 앞서가고 있었다. 특히 나에게서는 천마FC의 첫 번째 골이 인상 깊었는데, 전반 7분 36초에 넣은 그 골은 자막 (“올려주고, 헤딩하고, 골~!!”)과 정확히 일치했다. 13번 선수가 프리킥을 올려줘 19번 선수가 받아서 턴을 한 후에, 뒤에 있던 16번 선수에게 패스해 16번 선수가 라이너 킥으로 높게 띄워준 공을 헤딩골로 시원하게 마무리한 장면 말이다. ‘원 팀’이 되어 만든 협력이 소중한 첫 골을 만들어냈다. 이번 해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여자배구대표팀이 만들어낸 ‘원 팀’ 4강 신화와 비슷하게 말이다. 10세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벌써 이와 같이 팀워크에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같은 축구선수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FIFA 2010년 U17 경기와 청소년 스포츠한마당의 경기는 스포츠만의 파워풀한 메시지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왔다. 현장에 있었으면 더 생생하게 느꼈겠지만, 작은 컴퓨터 화면만으로도 나에게 전달되는 이 흥분의 감동은 그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느끼기 힘든 감정인 것이 분명했다.

스포츠에는 좋은 순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을 혼자서만 이겨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 대신에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를 위해 항상 믿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팀원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기에 몰두하면, 우리나라 U17 여자 월드컵 팀과 천마FC 10B 팀과 같은 기적 같은 성취의 순간이 일상에서도 충분히 자주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수기를 쓰며 내가 체육 분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서 오랫동안 성장하며 느낀 점을 말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하는 행동을 구분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으로 각자 해야 할 행동을 구분하곤 한다. 또 경기력 보다는 선수의 배경이나 경력에 따른 편견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편견을 내려놓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만큼은 성별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공평한 기회가 남녀 선수들에게 주

어지고 철저히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작은 믿음이 성숙한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고 확신한다.

또 한 가지, 나는 미국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며 생활해본 경험이 있다. 처음 낯선 환경에서 적응할 때 스포츠를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쉽게 어색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었는데, 현대 사회의 많은 갈등과 생각의 벽을 허무는 데에 있어 스포츠만큼 유용한 수단이 있을까? 스포츠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팀워크를 배우고 공정한 경쟁을 하고 체력도 기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활동이라는 점을 나의 경험을 통해 더욱 자주 하게 되었다.

대한 체육회의 훌륭한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프로그램으로 성장한 10세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도, 또 지금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날을 바라는 여자 청소년들에게도 스포츠 활동을 통해 느낀 다양한 경험들이 어른이 되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이 된다고 확신한다. 끝으로 우리 사회가 청소년 체육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노력해가는 모습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축구 할 때의 나의 기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겠다. 축구는 내 인생에서의 동기부여와 성취의 순간을 90+분에 담아낸 한 편의 파노라마와 같다.